

박성섭씨측 추천 인사 사분위, 이사선임 강행 조선대 “인정 못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조선대 구성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원이사 선임을 강행해 파장이 예상된다.

사분위는 1일 제 2기 출범과 함께 첫 회의를 갖고, 결원이사(2명) 선임을 논의한 결과 조선대 종전이사(옛 경영진) 박성섭씨측이 추천한 주광일 전 서울고검장을 이사로 추가 선임했다. 박씨측이 추천한 또 다른 후보 고광삼 전 조선대 의대교수는 다음 회의에서 선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조선대는 즉각 성명서를 통해 “결원이사를 박성섭씨측 추천 인사로 선임한 것은 22년 만에 이룬 정상화의 기쁨을 파과한 행위로, 사분위의 결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조선대는 1일 밤 긴급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으며, 2일 오전 대학 내 최고 심의·협의기구인 교무위원회를 열어 사분위의 결원 이사 선임 강행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사 정원 9명 가운데 결원이사(2명)에 대한 선임과 관련, 조선대는 이사 7명의 확정으로 인해 지난 1일부터 대학이 정상화된 만큼 나머지 이

사에 대한 선임권은 사립학교법과 민법에 따라 이사회에 있으며 교과부의 월권은 옹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전호중 조선대 총장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종전이사가 추천한 인사의 이사 선임은 사립학교 법인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고, 범조선비상대책위원회도 교과부와 사분위에 결원 이사 선임 중지 요청서를 전달했다.

사분위는 분규 사학 정상화 방안을 심의하기 위한 법적 기구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인사로 선임한 것은 22년 만에 이룬 정상화의 기쁨을 파과한 행위로, 사분위의 결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새로 선임된 위원은 민경찬 연세대 대학원장, 정재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김영성 성결대 교수, 배경울 상명대 부총장, 김동찬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 이미현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이었다. 또 재추천된 위원은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 김영석 연세대 교수이다. 이들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부장검사 20명 전보 등

검사 588명 인사

법무부는 1일 부장검사급 20명을 포함해 검사 588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인사를 8일자로 단행했다. <명단 16면>이반 인사에서 고검 검사급 20

명, 일반 검사 441명이 전보됐으며 신규 임용은 117명이다.

법무부는 검사장급과 부장급의 경우 지난해 1월과 8월 두 차례 대규모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한 점을 감안해 당시 인사 대상자 전원을 유인시키고, 이번에는 원칙적으로 인사를 동결했다.

/연합뉴스



지난달 29일부터 11박 12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 반둥 외곽 빵아레안 돌기에 들어간 봉사단원들이 현지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김은중기자 ejkim@kwangju.co.kr

전남사회복지사시험 봉사자 53명 인니 빵아레안 도착

텐트촌 난민에 희망의 집짓기

광주일보 후원 2020 해외봉사 프로젝트 본격 시동

주민들 “한국인 도움에 고맙게 잊을 수 없었다” 활짝

인도네시아=김은중기자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

‘하나 되는 지구촌, 희망! 아시아 2020 해외봉사 장기 프로젝트’가 본격 시작됐다.

전남도사회복지사협회가 주관하고, 광주일보사가 후원하는 이번 프로젝트의 첫 활동을 위해 지난 29일 인도네시아 빵아레안 도착한 자원봉사자 53명은 이날부터 반둥지역 교수 등과 모임을 갖고 봉사지역을 탐방하는 등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봉사단원들이 만난 빵아레안 주민들의 고통은 예상보다 심각했다.

빵아레안은 지난 2004년부터 크고 작은 지진과 쓰나미 등 자연재해가 8차례나 발생한 곳으로,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재난

빵아레안 곳곳에는 판자촌과 텐트촌이 즐비했고, 특히 250여가구 1천500여명의 피난민들이 살고 있는 텐트촌의 거주환경은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처참했다.

아들, 딸과 함께 봉사활동에 참가한 김명자(여·51·순천)씨는 “배고픔에 지쳐 울음소리 마저도 낼 수 없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이곳의 심각한 상황을 실감할 수 있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현장탐방을 마친 봉사단은 일단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는 텐트촌 주민들에게 쌀 100포대를 긴급 지원하는 한편 노숙중인 주민들을 위해 4채의 집을 지어주기로 했다.

텐트촌의 한 주민은 “한국 사람들의 마음 따뜻한 도움 덕분에 고

■인도네시아 빵아레안 위치도



통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다”며 활짝 웃었다.

한편 봉사단은 4차례의 현지 회의를 통해 장기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1단계로 한국의 지역사회 복지개발모형을 인도네시아의 상황과 접목시키는 지원 활동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의 전문 사회사업가를 파견해 사회사업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는 한편 현지 사회사업가를 한국에 초청, 훈련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프로젝트에 동참하기로 한 GS칼텍스도 매년 인적, 물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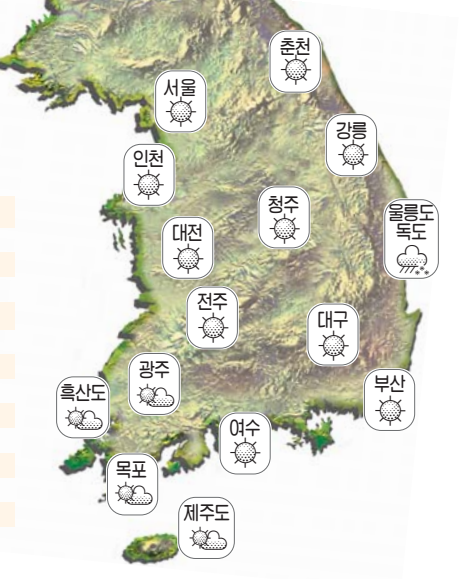
/ejkim@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31분 해질 18시 01분 달돋이 21시 45분 달질 09시 03분

밤부터 눈

늦은 밤부터 서해안에서 눈이 내리겠으며 점차 확대되겠다.

광주	맑은 뒤 흐림	-3/1℃
목포	맑은 뒤 흐림	-3/1℃
여수	맑음	-1/3℃
완도	맑은 뒤 흐림	-3/2℃
구례	맑은 뒤 흐림	-4/1℃
애남	맑은 뒤 흐림	-4/3℃
장흥	맑은 뒤 흐림	-4/3℃
고흥	맑음	-3/3℃
순천	맑음	-1/3℃
영광	흐리고 한때 눈	-4/0℃
진도	맑은 뒤 흐림	-3/1℃
전주	맑음	-6/0℃
남원	맑음	8/0℃
목성도	맑은 뒤 흐림	-1/0℃



〈오전〉 바다	중랑	파고	체감온도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5~2.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5~2.5m	관심	낮음	낮음

〈오후〉 바다	중랑	파고	일몰	별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목포 04:09	09:21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16:36	21:47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여수 11:18	04:56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5~2.5m	23:37	17:18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3(수)	4(목)	5(금)	6(토)	7(일)	8(월)
날씨	☁	☀	☀	☀	☀	☀
최저/최고	-5/1	-6/2	-5/4	-4/6	-1/8	1/9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먹으면 ‘큰코’

심근경색 등 부작용

성인용품점 7곳 적발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성인용품점들이 적발됐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보관·판매한 전남(2곳)과 전북(5곳) 지역 성인용품점 7곳을 적발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원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에서는 품질을 신뢰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실데나필)이 711mg이나 검출됐다. 이는 정상 제품의 7배가 넘는 양이다.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성분을 쓰거나 순도·함량 관리가 부실해 자칫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특히 심혈관계 환자가 섭취하면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 등 치명적인 이상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신양파크호텔

2010. 2. 1. 스테이크하우스오픈

신양파크호텔 11층 스테이크하우스 오픈 기념 할인 이벤트 (행사기간: 2010년 2월 28일까지) ■ 신청 문의 02-228-8000

리모델링으로 새롭게 태어난

신양파크호텔 워딩홀

향기로운 유아천 세팅, 최상의 음식, 최고의 서비스! 특급호텔에 지존하고 여유있는 결혼식을 약속합니다.

대한민국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한국차: 100% 원산지 100% 원산지 100% 원산지

100% 원산지 100% 원산지 100% 원산지

100% 원산지 100% 원산지 100% 원산지